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2007년도 개인정보피해 및 분쟁조정 사례를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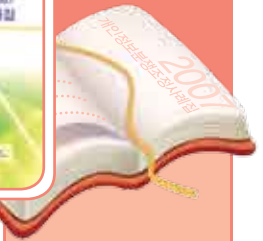
KISA, '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발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2007년 한 해 동안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에 접수돼 처리된 개인정보 피해 및 분쟁조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피해구제 절차안내, 2007년 개인정보 주요 이슈, 2007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 주요 피해구제 사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개인정보 피해민원의 유형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60여건에 이르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아진 인식에 비해 개인정보 분쟁에 관한 판례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례집은 국공립 도서관, 대학교 등 150여개 공공기관 및 관련 사업자 협회 등으로 배포됐으며,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를 통해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스타 해커”, 전문 보안인력으로 거듭나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본격 나섰다

지난 5월 개최한 해킹방어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스타 해커 구사무엘 씨가 7~8월 방학기간 동안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됐다.

구 씨는 현재 악성코드 분석, 침해사고 기법분석 등 침해대응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정보보호 전문가로서의 마인드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해커의 입장에서 관련 업무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커는 불법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침투해 타인의 정보를 훔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크래커’. 해커는 오히려 주요 사이트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 취약점을 찾고 보완책을 알려주는 보안 전문가이다. KISA는 향후에도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및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KISA 해킹대응팀 최종섭 팀장은 “정보보호 전문 인력에게 올바른 사회 활동 영역을 제시하고 또 적극 지원함으로써, 정보보호 인력양성 효과 및 현장감 있는 침해사고 대응이라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ISA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에 근무중인 구사무엘 씨(오른쪽)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 참가자 모집

사회소의 계층을 위한 서비스 성공적 안착

KISA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의 계층에게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시설 내 있는 PC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참여 봉사단원인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의 정보보호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에 공헌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PC 보안 서비스 방법에 대한 교육 후, 복지시설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윈도우즈 보안 패치 및 서비스 팩 설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스파이웨어 제거, 윈도우즈 계정·패스워드 관리, 공유폴더 보안설정, 웹 브라우저 보안설정 등이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30일 막을 올린 이후 현재까지 서울지역에서 1, 2차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신청을 통해 전국 곳곳의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을 돌며 PC 보안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학생들은 KISA 홍보전락실(02-405-5164, pr@kis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7월 9일 제1차 캠페인으로 송파 인성장애인복지회관에서 PC 점검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 NET 회원들

제3회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찾기 대회 수상자 발표

동명대학교 Think 최우수상 수상

KISA가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제3회 ‘S/W 보안 취약점 찾기대회’에서 동명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 Think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를 대상으로 공개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의 취약점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공격위협이 될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아 조치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명대학교의 Think를 비롯해, 경북대 KERT와 전남대 정보보호119가 우수상을, 숭실대 ACK, 홍익대 HUST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상위 3개팀 6명은 KISA의 지원을 받아 오는 10월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Hack In The Box 컨퍼런스’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를 진행한 KISA 대응지원팀 허창열 팀장은 “이번 대회에 출품된 보고서는 웹 서비스와 관련된 S/W 취약점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개 또는 상용 S/W에서 100여건의 취약점보고서가 접수됐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S/W 제작사와 협조해 취약점 패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EO의 한 달

지난 한 달간 KISA 황중연 원장의 활동 키워드는 '대의협력'. 협약을 통해 제조분야의 민간기업과는 처음으로 침해사고 협력대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놓는 한편, 아·태 지역 ITU 지역별 포럼에 참석해 국제기구와 국가 간 침해사고에 대한 협력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은 침해사고 대응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된 셈이다.



제조분야도 침해사고 협력대응 동참

: 현대중공업과의 MOU 체결 위해 울산으로

지난달 9일 황중연 원장이 현대중공업과의 '사이버 침해 공동 대응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된 협력체계는 대개 IT 업계와 체결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제조업 분야의 기업과 이뤄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KISA는 해킹·바이러스 예방기술과 악성코드 탐지도구 등을 현대중공업에게 제공하게 되며, 현대중공업은 기업 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ISMS) 및 이행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산업기밀의 유출방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협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및 중공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대책 공유 필수

: 행안부 주최, '공공기관 CPO워크숍' 기초연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황 원장은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CPO(Chief Privacy Officer)워크숍'에서 기초강연을 맡았다. '디지털 사회의 환경변화와 개인정보보호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황 원장은 "행정정보, 문화재 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민간이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보안사고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기구,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역설

: 아·태지역 ITU 지역별 포럼 참석

황 원장은 지난달 16일 호주 BCDE(광대역통신디지털경제부)와 ITU-D가 공동으로 개최한 '아·태지역 ITU 지역별 포럼'의 개최사를 통해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대응 방안과 이슈를 소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ITU 등의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호주 BCDE 장관 Hon Stephen Conroy는 황 원장에게 OECD 장관회담 개최 및 스캠, 정보보호 인식제고 사업, 봇넷 대응 등 KISA의 여러 협력사항에 감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